

R-25. 비우식성 치경부병소를 가지는 치아의 치주조직과 임상적 변수에 대한 연구

손민욱*, 장문택, 김형섭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 배경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교합접촉에 따른 국소적인 응력집중이 비우식성 치경부 병소(NCCL)의 중요한 기여요소로 밝혀 지고 있다. 이 경우 그 형태학적인 특징으로 인해 치태침착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외상성교합은 치주조직파괴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NCCL를 가지는 치아와 그 치주조직 및 교합에 관련된 임상적 변수들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재료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중 비우식성 치경부질환을 가진 35명, 105개 구치부 치아를 대상으로 하였고 같은 환자의 47개 치아를 대조군으로 하였다

실험군은 치경부 병소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서 wedge와 saucer 형태로 구분하였고 교합지를 이용하여 작업측과 비작업측 교합접촉을 검사하였으며 치주낭 측정(PPD, PPDM) 및 출혈(BOP)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periodontal probe를 이용하였다

범수형 변수의 빈도분석에는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고 표본 집단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경우 Mann-Whitney U test와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NCCL의 유무와 교합접촉의 유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2. NCCL부위 치주낭검사시 교합접촉이 있는 부위에서 유의할 만하게 큰 치주낭 깊이(PPD)를 관찰할 수 있었고 교합접촉형태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3. NCCL을 가진 치아의 최고 치주낭깊이(PPDM)에 있어서는 교합접촉의 유무와 교합형태에 따른 비교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4. 치태존재 유무, PPD, PPDM, BOP 유무는 NCCL을 가진 치아와 그렇지 않은 치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NCCL을 가진 치아에서 유의할 만하게 많은 빈도로 지각과민을 보였다.
5. 치태는 wedge 형태의 NCCL을 가진 치아에서 saucer 형태를 가진 치아에 비해 유의할 만하게 많은 빈도로 존재하였고 BOP, PPD, 지각과민, 이갈이 및 이악물기 습관은 그룹간에 통계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6. NCCL을 가진 치아에서 wedge 형태나 saucer 형태 모두 axial depth에 따른 변수들의 통계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마찬가지로 occlusogingival width에 따른 변수들의 통계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7. NCCL의 형태에 따라서 잇솔질유형은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 NCCL을 가진 치아 중 치태가 있는 치아에서 유의할 만하게 많은 빈도로 BOP를 보였으며 유의할 만하게 높은 PPD를 보였다.